

추석 명절 대비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상황 집중점검

- 추석 연휴기간 위험상황 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 운영
- 9월 11일(수) 제17차 현장점검의 날, 안전 취약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추석을 앞둔 9월 11일(수),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 중소기업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 【추락】 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끼임】 방호장치⁵,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⁶, 【부딪힘】 혼재작업⁷, 충돌방지장치⁸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②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③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9.14.~9.18.)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하여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재화 (044-202-8914)
			주무관	전재영 (044-202-8915)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2.6% 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건설업 분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확인 01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절차 마련·준수 02



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03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소화기 구비 04



비상구 확보, 비상대피훈련 실시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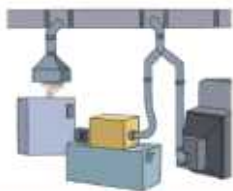
흡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차단 06



위험한 화학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 07



충분한 작업장 환기 08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09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보호구 착용 10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수칙